

☎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1994년도 표어 ☎

성령과 말씀이 충만한 사도적 교회

☎ 생활지침 ☎

1. 거듭난 사람
2. 성숙한 신자
3.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천국시민

발행인: 이종윤 발행처: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65-18 전화 / 517-7651 ~ 5 팩스 / 512-1225

다음 주일 (5월 1일), 입당감사예배 감사와 질서로

우 리 교회는 새 예배당으로의 이전을 이번 주간 내에 완료할 예정이다. 「감사와 질서 위원회」에서는 전교인이 함께 기도하며 직접 참여하여 감사와 질서로 채워지는 이전이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세부계획을

수립하였다. 교회 이전업무는 한주간 동안 매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하지만 불가피할 경우, 봉사가 가능한 시간에 오면 된다. 또한 자신이 속한 부서의 해당일이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와서 협력할 수 있다.

예배실의 이전과 더불어 교회학교의 집회 장소도 다음 주일부터 크게 변경된다. 현재 사용하는 건물은 그 일부를 교육관으로 계속 사용하지만 교회에 적응해야하는 새가족과 부모의 도움이 필요한 탁아부와 유치부, 유년부 어린이들은 새성전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교역자실과 사무국은 새성전 4층으로, 테이프 보급실은 새성전의 2층으로 각각 이전하며 식당은 당분간 현재의 위치에 그대로 있게 된다.

「감사와 질서위원회」가 발표한 이전계획과 장소 사용안은 다음과 같다.

각 부서별, 교구별 이사 추진 계획

일자 및 담당장소

책임부서및 교구	책임일자	책임이전장소	총 지휘	책임자
청년부·대학부·1,2교구	28(목)~29(금)	6층	이영렬·임진태	김상철·안의경·1,2교구장
예배위원·고등부·3,4교구	25(월)~26(화)	5층	김대호·권상석	하영수·3,4교구장
중등부·초등부·5,6교구	26(화)~27(수)	4층	박철훈·최병호	허찬우·서문석·5,6교구장
새가족부·7교구	25(월)~26(화)	사무국	이웅선·이남호	박두호·7교구장
임마누엘 찬양대·8교구	25(월)~26(화)	교역자실	김재호	이태상·8교구장
할렐루야 찬양대·9교구	25(월)~26(화)	당회실		성준경·9교구장
유년부·10교구	28(목)~29(금)	2층	김일용·장용휘	서춘식·10교구장
11교구	29(금)	테이프보급소		11교구장
가브리엘, 호산나 찬양대, 유치부·탁아부·12교구	29(금)~30(토)	찬양대실, 유치부, 탁아부실	홍정호·원필현	김재중·김중수·이관규·최재춘·12교구장

변경되는 예배 및 집회 장소

❖ 예배 및 집회 ❖

구분	장소	시간
주일예배	I부	1,2층 예배실 오전 9시
	II부	1,2층 예배실 오전 11시
	III부	1,2층 예배실 오후 2시
찬양예배	1,2층 예배실	주일 오후 5시
수요예배	I부	1,2층 예배실 오전 11시
	II부	1,2층 예배실 오후 7시
금요기도회	1층 예배실	오후 9시
새벽기도회	1층 예배실	매일 오전 5시 30분

❖ 교회학교 ❖

부서	장소	시간
탁아부	I부	302호 주일 오전 9시
	II부	302호 주일 오전 11시
유치부	I부	301호 주일 오전 9시
	II부	301호 주일 오전 11시
유년부	401호	주일 오전 9시
초등부	교육관 4층집회실	주일 오전 9시
중등부	교육관 5층집회실	주일 오전 11시
고등부	교육관 6층집회실	주일 오전 11시
새가족부	2층예배실	주일 오후 12시30분
대학부	교육관 6층집회실	주일 오후 1시
청년부	교육관 5층집회실	주일 오후 1시
사랑부	교육관 4층집회실	주일 오후 2시
소망부	교육관 4층집회실	주일 오후 12시40분

다음 주일 오전 8시 30분 현판식 오후 5시 찬양예배에 입당 감사예배

5월 1일 새벽예배까지는 구성전(교육관) 6층에서 가지며 다음 주일 오전 8시 30분에 현판식 및 테이프 절단식을 하고 새 성전에 들어가게 된다. 주일 낮예배는 종전과 같은 시간에 새 성전 1,2층 예배실에서 드린다. 저녁 찬양예배에는 새 예배당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할렐루야 찬양대」 주관으로 찬양으로 입당 감사예배를 드린다.



'94 제2차 학습, 세례식 지난 2일(수)에 1994년도 학습, 세례식을 거행했다. 물세례가 베풀어 지는 동안 성령세례도 함께 받기를 간구하면서 온 성도들은 각자가 세례받던 때의 결심과 각오를 새로이 하기도 했다

창세기강해



다시는 아니하리라

(창세기 8장 20 ~ 22절)

이 중 윤 (목사·당회장)

창세기 8장에는 노아를 권념(기억)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을 기억한 노아의 경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의 언급들은 인간적인 기억(memory)의 차원이 아니라 영적인 면에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후 단을 쌓고(8:20) 제물을 바치며 하나님께 드린 노아의 예배는 구원에 대한 감사와 자기 죄를 자복하는 속죄가 그 내용이었습니 다. 이와 같이 예배란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반응(response)하는 것입니다. 노아는 감사와 속죄의 제사를 드리면서 새 세상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주에서 나온 노아는 충만한 기쁨만 가진 것이 아니라 마음 한 구석에 두려움과 근심도 있었습니다. 노아도 어쩔 수 없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온 지면이 멸망당한 것을 보며 공포와 미래에 대한 근심에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어려서부터 악한 존재임을 알고 계셨습니다(21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시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고 노아에게 말씀을 주시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노아를 사랑으로 위로하시며 끝까지 지키시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1.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최초로 주신 약속은 아담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약속은 특별한 말씀을 통해서가 아니라 벌거벗은 몸을 수치스럽게 여기게 된 인간에게 가죽 옷을 입혀 주심으로 인간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을 주실 것을 약속하신 예표가 됩니다. 그 이후에도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다윗에게 주신 언약, 그리고 모세에게 주신 언약 등 여러 차례 주신 하나님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히 성취됩니다.

창세기 6장 18절 말씀에서 시작되어 9장에 까지 계속되는 노아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은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겠다는 언약(8:20 ~ 22)과 죄를 범한 자를 향해 벌하시겠다는 내용의 말씀(9:1 ~ 7), 그리고 무지개를 통한 구원예의 언약(9:8 ~ 17)으로 대분할 수 있습니다. 영원한 언약을 무지개를 통하여 눈에 보이도록 증거를 주신 하나님의 약속하심에는 몇가지의 특성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언약은 당신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주신다는 것입니다(8:22, 9:1 ~ 17). 인간 중에는 어떤 일에 대해 원치 않는 일을 억지로 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든지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 원하시는대로 일을 하십니다. 성경은 방주에서 나온 후 노아가 한 말에 대해서는 하나도 언급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창세기는 한 인간에 의해 저술되거나 조작된 것이 아닌 하나님의 기뻐신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는 하나님의 초자연적 계시사건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이루어는 일방적인 계약으로 이에 우리는 ‘아멘’할 뿐입니다.

둘째, 영원한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은 영원히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는 … 아니하리라”하신 말씀이 이 짧은 본문에 세번이나 나타난 것은 하나님의 결심을 보여 주고 계시는 것이며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하신 자연에 대한 언약도 하나님의 언약 속에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이 착하고 선하기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죄 중에 있을 때, 인간이 어려서부터 악하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놀라운 언약을 주고 계시는 것은 참으로 은혜의 언약이요 놀라운 축복의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밝히 증거된 것으로 주권적인 뜻을 따른 것이며, 은혜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영원한 것입니다.

2. 원죄 사상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고 하신 말씀에서 ‘어려서부터’라는 말은 인간이 본래부터 악하다는 뜻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도 이와 유사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 인간에게는 원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음이여”(시51:5)이라고 탄식하며 자기의 모친이 죄 중에 자신을 잉태하였다고 말합니다.

원죄에 대한 사상이 8장 21절에 기록되어 있

습니다. 이 원죄는 우리의 노력으로 해결할 길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3. 공포에서 환희로

인간은 본래 죄인으로 하나님의 공효와 사랑으로 구원을 얻어야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살아가는 것만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공효를 입은 자만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향유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았어도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죄값을 치려야 하는데 우리 죄의 값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지불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 영원하시고 신실하신 언약을 향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노아처럼 하나님 면전에서 죄인임을 고백하고 은혜를 받음으로 구원의 은총을 누려야 하겠습니까.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노아에게 주신 언약을 따라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결코 망하지 아니하리라”하신 말씀 속에는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가 결코 험이 없고 폐지되지도 않고 무너지지도 않는다는 약속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주 안에서 이와 같은 놀라운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의 백성답게 승리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 순례자 컬럼 ✦

제 자리 제 구실

사람이 제 자리에서 제 구실을 할 수 있다면 그는 훌륭한 사람, 행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제 자리를 잃고 제 구실을 하지 못한 분수를 잃어버린 사람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 학생과 스승의 자리, 근로자와 경영자의 자리, 백성과 공직자의 자리가 엄연히 구별되어 있다. 상하의 계급이 있어 구별된 것이 아니고 직분의 성격상 자리를 정한 것이다. 그 자리값을 해야 하는 것도 중요하다. 사람이 제 구실을 못하게 되면 그 결과는 제 자리를 찾지 못한 이와 같이 도리어 남에게 무거운 짐이 되고 만다. 제 자리에서 제 구실을 하는 이를 사회는 존경하고 아끼는 것이다.

풍부한 지식과 지략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즈음 같아서는 그런 면에서는 좀 부족하더라도 진실하고 거짓없는 정직한 이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구실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하다.

이제 형제들을 위하여 눈물을 뿌리자

유수영

(전도사·사랑부 지도)

「胡地無花草 하니 春來不似春이라」

王昭君의 애담은 심정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온 천지에도, 북한에도 진정 봄을 왔을 터이나 화사한 기운 대신 슬픔과 굶주림만 있다 한다. 얼마 전, 심한 주림을 견디지 못하고 북한을 탈출하여 중국에 숨어 살던 일가족 네명이 북한 공안원에게 체포되어 팔다리는 쇠사슬로, 코는 철사로 꿰어 압송압송되었다는 신문 보도를 보고 참으로 경악과 슬픔을 금할 길 없었다. 다섯 살 철부지에게까지 코를 꿰다니... 러시아 삼림의 벌목공들과 북한의 동포들은 계속하여 목숨을 건 탈출을 시도하여 30년만에 먹여보는 김과 생선을 맛보며 포식 후 체포되면 여한 없이 자살해버리는 일이 속출하고 있다고 한다. 이들은 누구인가? 우리와 한 핏줄이 아니던가?

반면, 이 나라 대부분의 사람들의 관심은 사업, 출세, 자년 교육, 건강, 명예, 권력, 많은 부동산, 호화 혼수 등 전쟁이 일어난다면 모두 무용지물이 될 것에 두고 있다. 부질없이 불타면 모두 잿가루가 될 것들을 섬기는 모습을 주님은 슬퍼 하실 것이다.

그동안의 많은 부르짖음 속에 이제 망명의 길은 열렸으나 아직도 참된 봄기운을 모르는 형제들이 주님의 손길을 기다린다.

어서 무릎을 꿇자. 복념의 형제들도 주님의 보호하심을 입고 허락하신 새 땅을 밟도록, 복음화된 통일조국의 도래를 위해 눈물을 뿌리며 기도하자. 휴전선 너머의 형제들의 어두운 현실을 좌시하지 말자. 그곳에 교회당을 부르짖음으로 세우자. 사론의 꽃 예수의 사랑이 그들에게도 피어나 향기 풍길 수 있도록 통곡하자. 감사함으로 헌신하자.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올라...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70인전도단 - 『전도 간증의 밤』 스케치

“기도 외에는 다른 능이 없더라”

■.....70인 전도단에서는 지난 4월 22일(금) 저녁 9시 금요기도회 시간에 6층에서 간증집회를 가졌다. 강사는 양경애 집사로 1993년 한 해 동안에만 8,800명, 1994년 현재 1,500명을 교회로 인도한 그의 전도 비결을 들었다. ■

구태의연한 신앙인의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열심있는 신앙인들을 조롱하곤 하던 내게 어느날, 마음의 기쁨이 물밀듯 밀려왔다. 생명을 얻은 것이 기뻐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그냥 믿어지는 것이었다. 그 때부터 전도의 방법도 모르고 전도 훈련을 받아본 적도 없지만 주위 사람들에게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대로 전했다. 내가 예전에 그러했듯이 많은 사람들이 놀라웠으나 내 구원의 확신과 살아계신 예수를 전하니 그들도 조금씩 관심을 가졌다.

주님은 점차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셨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살아, 운동력있음이 또한 믿어졌다. 말씀의 약속에 따라 문이 열린 곳 마다 들어가 주님을 전했다. 때를 얻든지 못얻든지, 그들이 호의적이든지 배척하든지 복음의 내용을 담대하게 외쳐댔다. 자존심과 체면을 생각한다면 껴지 못할 일이 너무도 많았으나 전도란 핏박을 각오해야 하는 것임이 당연하다. 영적 싸움이 치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얻어맞을 각오를 하고 거칠게 덤벼들어도 아직 한 번도 때를 맞지는 않았다. 도 전함에 있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담대함을 가지는 일과 인내를 가지고 나아가니 한 명, 열 명 때로는 수백명이 교회로 발길을 옮겼다. 순종만 하면 말재주가 없는 내가 스스로도 깜짝 놀랄만큼 꼭 필요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입을 열게 하시며 내게 붙여 주신 자들을 성령께서 꼭 짚 못하도록 인도하시는 것을 자주 본다.

수년간 매일 새벽에 주님이 구원하시고자 예정하신 자들을 만나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왔다. 무디나 베드로처럼 큰 전도자의 비전이 우리에게 불가능 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으로 감히 그런 마음의 소원을 아뢰었을 때, 주님은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와 지혜와 예비된 길을 보이셨다. 성경은 온통 예수를 말씀하신다. 그러니 나도 예수만 전한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모든 일, 나를 이기는 일은 기도 뿐이다.

◆ 생활 속의 이야기 ◆

내 묘비명은 어떻게 씌여질까?

김송희

(청년부)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직 젊은 내게는 ‘죽음’이라는 것은 실감나지 않는 일이다. 그러니 청년부 집회 시간, 신자의 죽음에 대한 성경적인 고찰을 하며 “내가 죽은 후 무덤에 씌여질 묘비명을 한 번 생각해 보자”신 전도사님의 말씀은 충격적으로 내 뇌리에 박혀 일주일 내내 떠나질 않았다. 묘비명에 대한 생각은 결국 오늘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생각으로 이어지는 것이었다.

그러던 중 「써머스 비」라는 영화가 생각났다. 써머스 비라는 주인공은 괴팍하고 거짓말을 잘하는 방탕아인데 전장터에서 자기와 성격과 외모가 똑같은 사람을 만난다. 써머스 비

는 불행하게 죽고 그와 닮은 사람은 써머스 비의 고향에 와서 써머스 비로 행세하며 전쟁의 영향인듯 위장하여 예전과는 정반대의 사람으로 탈바꿈한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일거리를 제공해 주고 잘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가 하면 아내와 자식을 사랑하는 가정적인 사람이 된다.

그러던 어느날, 살인 누명을 쓰고 잡혀가는데 이유는 진짜 써머스 비가 예전에 어떤 사람을 살해했기 때문이다. 가짜인 써머스 비가 살 수 있는 가능성은 자신이 가짜라는 것만 밝히면 되고 중인도 충분히 있었다. 실제로, 재판 도중, 그의 부인은 그가 가짜임을 증언한다. 그런데도 그는 완강히 그 사실을 부인하며

담담히 죽음을 맞이한다. 예전에 허랑방탕하던 생활을 벗어나 이제야 겨우 새사람이 되었는데 죽을지언정 예전의 자신이 되기는 싫은 것이었다. 결국 그는 아내와 마을 사람들의 안타까운 시선 속에 기쁘게 죽는다.

그런 그의 묘비명에는 예전의 그였다면 도저히 새겨질 수 없는 「사랑받는 남편이었으며 존경받는 시민이었다」라는 글귀가 새겨진다.

~~~~~

나의 묘비명은 어떻게 씌여질까?  
「장미같은 외모와 백합같은 향기를 가진...」  
「돈을 많이 벌고 잘 쓸 줄 알았던...」  
「낮의 해갈고 밤의 달같은 음식의 소금같았던...」  
「예수님을 사랑하였고 예수님처럼 살다간...」

브니엘  
하나님의 일과

욕망은 죄를 낳고 ...

소 위 법란이라 일컫는 대소동이 서울 한복판, 그것도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조계사라는 곳에서 마치 영화『소림사』의 한 장면처럼 벌어졌다. 승복을 입고 목탁을 든 승려들이 몽둥이를 휘두르며 유혈이 난장판하는 난장판을 벌인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전쟁 위기설과 우루과이라운드 타결에 따른 경제문제로 걱정이 많은 차제에 속세를 떠나 구도자의 길을 간다는 그들이 엄청난 돈으로 폭력배들을 매수해서 그 아량한 자리를 지키고 권력을 행사하겠다고 난리를 일으켰으니 비록 우상을 섬기는 집단에서 벌어진 일이지만 도무지 예사롭게 넘길 수 없다. 중요한 사안이 처리될 때마다 여의도에서 벌어진 난투극에 아무리 익숙해진 우리들이지만 『종교개혁』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이다. 욕심 - 죄 - 사망의 경종을 다시 한 번 되새겨 보고 이번 사건을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 세인들에 의해 손가락질 받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됨은 물론 하나님 앞에서도 칭찬받는 진정한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할 것이다. 성경을 끼고 근엄한 태도로 십자가를 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대로 행하는 생활은 더욱 중요한 것이다.

✧ 우리 이웃 살뜰하고 보기 ✧ - 『백합선교회』

영동시장 한 모퉁이 지하식당 이름이 『선교회관』이다. 정갈한 도시락, 구수한 사골 된장국 등을 나르시는 분들 표정이 여느 식당과는 좀 다르다는 인상을 준다. 약 8년 전부터 직업여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몇몇 교회 여전도회원들이 뜻을 모아 세운 이 식당은 여성도들의 자원봉사로 이루어지고 있다.

많은 직업여성들이 작은 선물과 함께 전해지는 복음을 받고 자신의 삶을 청산하고 돌아서기도 하지만 사회에 적응하는 문제가 어려워 다시 돌아가곤 하는 안타까운 현실이기에 그들이 자립적인 신앙인으로 서도록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백합선교회』를 건립하는 것이 백합선교회의 소망이다. 우물가의 여인에게 복음을 주시던 주님 앞에서 이웃 사랑의 책임을 실천하려는 백합선교회. 선교식당을 이용하는 일과 후원금으로, 기도로, 이들의 사역에 작게나마 동참할 수 있다. (☎514-2356, 547-3761, 실장 / 1교구 김영희 집사)

교우 동정

- 강중심 집사·전인화 권사의 장남인 강주해 목사(서울영락농아인교회 담임)가 지난 5일 미국 워싱턴 웨슬리 신학교 동문들이 추천, 시상하는 존 웨슬리 소사이어티상을 수상하였다. 농아인으로 장애를 딛고 농아인을 위한 목회에 많은 공헌을 한 강목사의 소망은 우리나라를 농아인을 위한 교육의 일등국으로 만드는 것이다.
- 한종훈 성도(10교구 길동 다락방)는 지난 22일(금)은평구 불광동에 패션할인매장을 개장하고 예배를 드렸다. (☎ 355-1211)
- 장창걸 성도(10교구 감북 다락방)는 지난 22일(금)경기도 고양시에 인테리어점 『태안 에이클 상사』를 개업하였다. (☎ 0344 / 966-0962)
- 이순례 집사(2교구)가 신병 치료차 도일하였다.

서울주간기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1. 새 예배처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2. 5월 1일 입당을 위한 준비를 감사와 질서 속에 잘 할 수 있게 하옵소서.
3. 우리 민족을 전쟁의 소문과 갖가지 위기에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4.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제 2 회

한가족 • 한마음 축제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조차 하나되자”

● 준비하세요 ●

운동화를 신은 간편한 옷차림  
점심시간에 다락방 식구들과 나눌 맛있는 도시락  
그리고 ... 열린 마음

우리 팀, 우리 교구

| 팀 명     | 민 음                  | 사 랑                   |
|---------|----------------------|-----------------------|
| 해 당 교 구 | 1, 2, 5, 6, 9, 10 교구 | 3, 4, 7, 8, 11, 12 교구 |
| 색 상     | 청 색                  | 백 색                   |
| 단 장     | 오정수 장로               | 박철훈 장로                |
| 응 원 단 장 | 이관규 집사               | 박두호 집사                |

● 찍습니다, 찍어요 ●

이 날 한마음되어 울려 퍼질 서울가족의 합성을  
사진과 비디오 테이프에 남기려 합니다.  
카메라와 비디오 카메라를 가지신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5월 5일(목)은  
서울교회 화합과 축제의 날!

아침 9시 30분까지 잠실운동장 보조경기장에 모입니다.

5월 2일 목회자세미나

- 제 1교시 / 『로마서 강해』 - 이종운 목사
- 제 2교시 / 『설교자의 영성과 교회갱신』 - 류기종 박사

■ 이종운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837KHz) 「성경교실」 매주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극동방송(HLKK 1188KHz)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대전 극동방송(HLAI FM 93.3MHz) 「늘푸른 초상」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 6시50분  
아세아방송(HLAX 1566KHz) 「주일설교」 매 주일 오전 8시 ~ 8시 30분  
「주일설교 재방송」 매주 화요일 오전 4시 10분 ~ 4시 50분

■ 예배 및 집회

| 구 분       | 시 간          |
|-----------|--------------|
| 주 일 예 배   | I 부 오전 9시    |
|           | II 부 오전 11시  |
|           | III 부 오후 2시  |
| 찬 양 예 배   | 주 일 오후 5시    |
| 수 요 예 배   | I 부 오전 11시   |
|           | II 부 오후 7시   |
| 금 요 기 도 회 | 오후 9시        |
| 새 벽 기 도 회 | 매일 새벽 5시 30분 |

■ 교회위치

